

## 국내 동향: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

### R&D 거버넌스 개혁

-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신설: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활
- 과학기술 전담 부처에 예산 편성·배분·조정 기능 강화(기재부는 총액만 관리)
-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추진

### R&D 투자 정책

- 기초연구 강화: 순수 기초연구비 2020년까지 2배 확대(2조→4조)
- 연구자율성 확대: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 연구비 비율 2배 확대(20%→40%)
- 중소기업 지원 강화: 중소기업 전담부처 신설 검토,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증액 및 지원 강화
- 인적 투자 확대: '사람' 중심 R&D 투자 방향 강화

### 출연연구기관 관련 정책

- 출연(연) 정책기조: 자율성 확보하며 책무성 강화 중심 운영
- 출연(연) 역할 정립: 국가 임무형(보건, 안전, 재난, 표준, 기후, 환경 등) 연구개발 및 혁신지식 플랫폼화
- 기관경영평가 축소 및 연구능력 평가 확대
- 노동이사제 도입, 공공기관 이사회 내 공무원 비중 축소·연구자 참여 확대

### 과학기술인 및 연구환경 관련 정책

- 평가제도 개혁: 단기적·양적 평가에서 장기적·질적 평가로 전환
- 적정임금 체계 마련을 통한 연구자 처우 개선 추진
- 박사 후 연구지원제도 대폭 확대,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와 4대보험 보장
- 신진연구자 대상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 지원
-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해결 및 일-가정 양립 지원

### 시사점

- 주요 정책기조: 자율성 보장, 기초연구 강화,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확대 등
-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
- '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'(18~22), '해양수산 R&D 계획' 등 구체적 정부 정책 수립에 적극적 참여 필요

## 해외 동향 : 북극이사회 장관급 회의 등

### 북극이사회, 페어뱅크스 선언(Fairbanks Declaration) 발표(5.11)



ARCTIC COUNCIL

- 제10회 북극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8개국 장관은 페어뱅크스 선언문에 합의
- 2030년까지 실현해야 할 4대 분야별 46개 세부과제 제시
- 4대 분야 : 북극해 안전·안보·관리, 경제생활여건 개선, 기후변화 영향 강조, 북극이사회 강화([선언문 전문 링크](#))

### 핀란드 : 신임 북극이사회 의장국 임기 시작(2017-2019)



- 신임 의장국 핀란드 중점 추진 프로그램 제시
- 파리기후변화협약(2015) 및 UN의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의 중요성 인식
- 4대 중점추진전략 제시 : 환경 보호, 연결성(connectivity) 강화, 기후(변화) 협력, 교육 ([의장국 프로그램 링크](#))

### 미국 기후변화 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밝혀(5.11)



-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후변화 정책을 검토중이라 밝힘
-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-28일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([관련기사 링크](#))

### 러-일 북극권 LNG 프로젝트 등 새로운 에너지 협력 합의(5.6)



- 북극권 LNG 프로젝트, 동시베리아 및 오호츠크해 대륙붕가스 생산, 극동지방의 풍력설비 건설, 풍력 발전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의 협력 합의
- 러시아는 2035년까지 현 석유생산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동시베리아와 북극권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힘 ([관련기사 링크](#))

###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CAFF, 북극해양생물다양성 보고서 발간(5.11)



- 환북극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고서 발간
- 6대 생태 분야(해빙 생물군, 플랑크톤, 저서생물, 어류, 조류, 포유류)별 생물다양성 평가([보고서 전문 홈페이지 링크](#))